

# '전기차 생산 D-100' GGM 준비 착착... "성공 양산" 결의

오는 7월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성공적 전기차 양산 D-100' 점검 회의와 결의대회를 열고 성공 양산을 다짐했다.

3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시험생산에 돌입한 이래 실제 판매 수출할 차량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차를 생산하고 모든 성능과 품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완벽한 품질의 전기차 양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캐스퍼 전기차는 기존 캐스퍼보다 전장이 길어지고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최고 품질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그동안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 구축에서부터 시

## 오는 7월 15일 양산 시작...하반기에만 1만7000 대 생산 계획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성공적 전기차 양산 D-100' 점검 회의와 결의대회를 열고 성공 양산을 다짐했다.

운전, 시험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다.

오는 20일 50여 명이 넘는 인제가 새롭게 입사할 예정으로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우수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7일 윤몽헌 대표이사

가 취임한 이래 올 1월 15일 김석봉 생산본부장, 3월 22일 김대식 부사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경영진이 모두 자동차 전문가로 채워지는 등 전기차 생산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완벽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바탕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반기에 2만4000 대, 하반기에 2만4500 대 등 올해 모두 4만85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하반기 생산 물량의 70%에 달하는 1만7000대를 전기차로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차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현재 1교대 방식인 생산 체계를 2교대로 확대해 전체 생산량을 늘리고 지역 인재 채용도 크

게 늘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대표이사외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양산 준비 및 품질 현황을 점검하는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3시부터 전 임직원이 모두 참가해 전기차 성공 양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몽헌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해 소비자 만족은 물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무결점 최고 품질의 전기차 생산을 내놓겠다"며 "회사 설립, 존속, 발전의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반드시 지키고 실현해 모든 임직원이 상생 협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 K-조선 18조원 수출 중 제치고 세계 1위 탈환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이 중국을 넘어 3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선박 수출액은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99억 달러였는데, 1분기 만에 절반 가까운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한국 분기별 선박 수출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도 1분기 전세계 수출의 약 44.7%를 점유했다.

1분기 수출량은 우리나라가 449만 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 CGT)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증가율 자체는 가파르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은 0.1%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수출량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05만 CGT로 중국(73만 CGT)을 앞섰다.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지속 중이다.

## 그룹 총수 40명 주식 3조 ↑ 이재용 1조7000억 증가

올 1분기 국내 40개 주요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이 3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는 16조 원 이상을 보유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3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40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3월말 기준 62조2552억원으로 최근 3개월 새 3조3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으로, 1월 1212억원에서 3월 2051억원으로 최근 3개월 새 839억원, 69.2% 증가했다. 2위는 이재현 CJ 회장으로 1월 1995억원에서 3월 1조6489억원으로 37.5% 정도 증가했다.

40개 그룹 중 올 1분기 기준 주식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던 총수는 이재용 회장으로서, 최근 3개월 새 1조7191억원 이상 증가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조1138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 40개 그룹 총수 중 18명은 최근 3개월 간 주식가치가 떨어졌다. 감소폭이 가장 큰 총수는 조원태 한진 회장으로, 1월 3024억원에서 3월 2302억원으로 23.9% 하락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인과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인 분야는 재배생산 부문 순천시 선성운(유기농 벼·밭·고사리) 씨가 최우수상, 담양군 김영희(유기농 단감·매실)·함평군 박인섭(유기농 벼·밀·숙) 씨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가공유통 부문에선 장성군 심재근(유기농 야채수) 씨가 최우수상, 보성군 조효의(친환경 배)·김경욱(유기농 유자) 씨 우수상을 수상, 축산부문에선 해남군 이문석(한우) 씨가 최우수상을, 함평군 정상훈(육계)·보성군 이용만(젖소)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 제공

##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한다

### 중기청-한전-중진공-산단공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중기청)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협·단체들과 힘을 모은다. 광주·전남중기청은 3일 4개 지원 기관 및 6개 협·단체와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지원사업은 ▲에너지 컨설팅과 ▲한전의 '2024년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컨설팅'은 4월부터 업무협약 참여한 협·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지원기업은 접수 순서, 예산 및 협·단체 신청 건수를 감안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해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컨설팅은 한전 등 에너지 전문가가 기업의 최근 3년간 월별 전력 사용량, 계약전력 등 분석하고 LED, 펌프 등 에너지 기기·설비 점검한 후 누전·대기전력, 기기·설비 가동상태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한전의 '2024년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연계 지원은 중진공의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산단공의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기기·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권형안 기자

## 환경친화축산농장에 전남 3곳 추가

### 총 10곳...상성 '성산종돈장'·진도 '유로팜'·'이유팜'

전남도는 장성 '성산종돈장', 진도 '유로팜'과 '이유팜'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지역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10개 농장으로 늘어 전국(20곳)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축사 관리, 농장 경관의 조화, 가축 분뇨 적정 관리·이용 등에

충실한 축산능기를 농식품부 장관이 평가해 지정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위탁개선 사업과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20% 추가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산종돈장은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2009년 해협(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또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해 악취 발생 감소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돼지 폐사율을 줄였다. 출하일령도 단축해 모든 연간 출하 수 26마리로 전국 평균(18마리)보다 1.4배 높은 선도 축산농가다.

오재근 대표는 한돈협회 전남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 전남 농어민대상, 2021년 축산선진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로팜과 이유팜은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2년 해협(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 악취 저감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선도농가다. /김 호 기자

## 국내 반도체 전문가 '광주 총출동'

###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 학술대회' 개막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첨단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등 미래 기술과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광주시는 3일부터 4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2024 정기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993년 설립된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는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관련 분야 선진회사·대학·연구소 간 학술, 기술교류, 정보교환활동 등을 위해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반도체 육성사업, 연구기관 반도체 생산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소개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불업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수도권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지난해 유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시장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국내 전문가와 지역 산·학·연 전문가,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차세대 첨단 반도체/전자 패키징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반도체 및 전자 패키징 전반에 대한 발표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중집적, 칩렛 등 차세대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먼저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김상민 팀장은 '광주 반도체 육성사업'

## GIST 교원창업기업 '테디메디'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선정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교원창업기업 테디메디(TeDi MEDi)가 삼성전자 C랩(C-Lab)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재 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핵심 스타트업 3개사를 선정했다.

테디메디는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와 김태 대표가 근적외선 광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창업했다.

'수면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는 테디메디가 출시할 첫 제품으로서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 광생체 조절 기술을 활용한 이 기기는 근적외선 광이 아데노신 삼인산(ATP) 합성을 촉진해 아데노신으로 분해하고 아데노신은 뇌에 수면 압력을 높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 '쏘나타 택시' 출시...공간·편의성 강화

### 휠베이스 70mm 늘어·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현대차가 택시 전용 중형 세단 모델인 '쏘나타택시'를 3일 출시했다.

국내 내연기관 가운데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인 쏘나타택시는 전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과 변속기, 타이어 등을 적용했다. 기존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70mm 늘어나며 2열 공간이 넓어졌으며,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대용량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로팜과 이유팜은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2년 해협(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 악취 저감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선도농가다. /김 호 기자

20%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특히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dNC를 탑재했으며,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적용해 편리성을 높였다.

쏘나타 택시는 표시등도 차별화했다.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의 택시 표시등과 빈차등 하나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루프 중앙에 장착되는 기존 택시 표시등과 달리 조수석 B필러 위쪽의 루프 몰딩에 장착돼 세련된 느낌을 준다.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나보다 내구성이